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1-16)

오늘은 맥추감사주일로 지킨다. 성경은 계절기를 말하고 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기준은 유월절이다. 그날 저녁 그 언약의 피를 발랐는데 그 때 노예에서, 저주에서 해방을 받았다. 이제 이 맥추절은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이다. 본래는 안식일 기준인데, 안식일로 기준하면 49일이야 되는데 그 다음날 성령님이 임하셨다. 안식후 첫날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관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약시대부터 이미 안식후 첫날을 예언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안식일 이렇게 말하면 말이 안된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성령님이 오신 날이다. 노예로 있을 때, 광야를 걸어가갈 때 이미 예언해냈다. 500년 후에 안식후 첫날, 이 오순절날 성령님 오실 것을 예언해냈다. 이것이 맥추절이다. 이 날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제일 첫 번째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셨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첫 열매라는 것이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미 다 이야기 해 냈다. 그 다음에 결론이 천국에 가서 영생하는 것이다. 그것이 수장절이다. 곡식을 거두어 들이는 것도 그냥 거두는게 아니라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 내가 내 곡식, 알곡들을 거두어서 천국창고에 넣을것이니까 너희는 곡식 거둘 때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이다. 그것이 수장절이다. 그 때는 책도 없었다. 책이 너무 많지 않아서 가져갈수 없으니 이런 절기로 기억하는 것이다. 이 절기들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각인하는 것이다. 그것이 세 절기이다. 그 중에 오늘 두 번째,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다. 첫 열매를 드림으로 일년동안 앞으로 살아갈, 그리고 후대의 큰 열매를 맺기 바란다. 이런 것을 언약으로 잡고 현금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홍해 사건이다. 아주 성경에서는 중요한 사건이다. 너희는 가만히 있을 지니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보겠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중에서도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갔고 성경은 말했다. 하나님 나도 이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옵소서. 마른 땅으로, 그냥 진흙땅으로 건너가도 큰 은혜인데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것이다. 이런 축복이 우리에게 이 주간 일어나기 바란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믿음으로 구원 받은 사람들이다. 성경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재앙을 막을수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나열해서 설명하고 증명하고 있다. 혹, 유투브같은데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천국 지옥 간증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부다 믿을 필요는 없지만 천국과 지옥이 분명히 있으니까 참고할만하다. 그 중에는 아주 엘리트도 있다. 그리고 스님들도 있다. 아주 대표적인 보수신학을 한 목사님도 있다. 어떤 스님은 법당에서 목탁 두드리는데 찬송가가 나와서 결국 목사 된 사람도 있다. 이런 극적인 체험을 한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있다. 오직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는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이 지옥 재앙을 면할 길이 없다는 것이다. 이 분들은 아직까지 이 땅에 살아 있거나 돌아가셨거나 그렇다. 성경은 소설이 아니다. 소설이 아니라 사실을 가지고 증명하고 있다. 오직 그리스도만이 인간의 재앙을 막을수 있다고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었다. 그래서 이 모든 실제적 사실앞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해야 할 것 하나 있다.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문제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 아니라 답인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는 것이다. 이 언약으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헌신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놀라운 일을 일으킨다. 우리 인생을 뒤집어 버린다. 아주 역사 일어나고 오늘처럼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 한꺼번에 일어나기도 하고 점진적으로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어난다. 확실한건 계속 바뀐다. 결국 하나님 앞에 100% 영광돌리는 축복으로 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선택하는 것이 그렇게도 중요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이 언약을 선택했다면 광야 40년 안해도 되었을 것이다. 바벨론 포로 70년도 마찬가지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이야기 했다. 그 말대로 우상숭배만 안했어도 70년 안해도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천년동안 방황하고 6백만명이 학살당한일이 있었다. 만일 그 당시에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언약을 선택했으면 후손들이 이런 일 안당해도 되었을 것이다. 무슨 이야기인가? 우리가 언약을 선택하면 인생 바뀌어 버린다는 것이다. 이것은 역사를 기록해 놓고 이렇다고 우리에게 증명해주는 것이다. 정탐꾼이 들어와서 보고할 때, 너희들이 만일 10명을 버리고 2명을 선택했으면 내가 왜 40년을 광야에 두겠는가하는 것이다. 내가 내 선지자 말대로 우상을 끊고 내게로 돌아오면 내가 왜 너희를 바

벨론에 70년이나 보내.. 하나님은 약속을 뒤집지 않기 때문에 70년동안 가 있었어도 대역사 나타내셨다.

산이 있는데 거기에 굴을 뚫는 것이다. 빨리 뚫기 위해서 양쪽에서 시작을 했다. 중간에 잘못되어서 어긋나버렸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굴이 두 개가 되어 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굴 두 개 있다고 너무나 같했다고 하면 되겠는가? 틀린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 쓸데없이 두 개 뚫어서 시간낭비, 돈 낭비 한 것이다. 우상숭배해서 70년 갔는데, 가서 왕처럼 살았다고 해서 괜찮다고 할수 있나? 그런 해석은 하면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은 사실이다. 우리가 아무리 언약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축복해주신다. 그렇다고 매일 잘못하라는 말인가? 그것은 아니다. 70년 포로로 안갔으면 그 시간동안 유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모른다. 솔로몬처럼 되었을수도 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역사적 사건 앞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잡기 바란다. 반드시 우리 인생은 역전이 일어난다. 이유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백성은 그리스도를 선택 안하면 인생 이상해진다.

1.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가만히 있으면 내가 홍해를 가르겠다는 것이다. 우리도 진짜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님이 바빠지실것이고 하나님이 길을 내실 것이다. 그런데 오늘 홍해의 기적을 두고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이 홍해의 일은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유가 있으니까. 2절을 보면 돌이켜라는 단어가 나온다. 백성들이 가고 있는데 거기 말고 돌아오라는 것이다. 그리고 장소도 정확히 지정해줬다. 바다와 므딕들 사이 비하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쳐라. 장막 쳐서 앞을 보면 거기서 바알스본이다. 3절에 보면 그렇게 하면 바로가 보기에 이것들은 광야에 갇혔다고 생각될 그 자리에 장막을 치게 하였다. 그리고 4절에 하나님이 계속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그래서 애굽에 바로와 그 군대로 인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려고 계속 마음에 악한 생각이 일어나게 하신 것이다. 7절에는 보면 선발된 병거 6백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고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다고 하였다. 병거는 요새같으면 전차이다. 대단한 무기이고 전부 다 가지고 나온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홍해 사건을 일으킨 이유이다.

사단을 완전히 죽이고 백성들을 완전히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것이다. 사단이 죽어야 완전히 해방이다. 홍해와 애굽사이에 남아 있어서는 완전히 해방이 안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방법은 누가 봐도 꿈쩍 못할 자리에 갖다 놓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 사단을 이기게 한 것이다. 그리고 그 군대를 다 죽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사단은 천지도 모르고 기회가 왔다고 날뛴다. 아주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하지만 결과는 폭망이다. 사단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모른다. 혹 알아도 중단을 못한다. 여기 가면 죽을 것 같은데 거기에 계속 온다. 계속 죽고 죽고 난 뒤에도 모른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사단이다. 이 축복이 언제 우리에게 있냐면 언약을 잡았을 때 온다. 이 사람들은 언약의 백성이고 피를 바르고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단을 이들 앞에서 바보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간단하다. 언약 잡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 따라 가는 것이다. 하나님 계획 따라 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은 같다. 그리고 그것은 이미 결론났고 책도 가지고 있다. 성경이다. 요약하면 그리스도, 세계복음화이다. 이 안에서 때로는 구체적이고 단계적인 계획이 있을수도 있다. 단계적인 세밀한 것들을 알지도 못하고 알필요도 없다. 그걸 우리가 어떻게 다 아나? 우리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있다. 큰 방향 다 정하고 그 때마다 하나님이 인도해주시라고 기도하고 언약잡고 기도하면 된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도해주시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리스도를 언약으로 잡아야 사단이 죽는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고 사단을 죽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언약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고 그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살린 것이다.

그러면 오늘 사건에서 우리가 확인할 중요한 것은 홍해의 일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되었다. 그것은 알겠는데, 홍해만 그런가, 아니면 우리의 모든 삶도 그런가 하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삶도 그렇다. 우리의 일상적인 일도 하나님의 의도적인가? 여기에 대해 확인하고 확인가질 필요 있다. 주님은 나사로가 죽은 것을 제자들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고 계셨다. 왜 죽었는지 이유도 알고 있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라고 하였다. 엘리사는 아람군대가 어디로 가는지 환하게 알고 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군대장관에게 말해주니

아람군대 가는데로 따라가는 것이다. 아람왕이 환장해서 분명히 스파이가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미 모든 계획을 이야기 하고 불렀다. 그리고 그 이야기 한 것은 지금도 그대로 성취되고 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다. 그 꿈 성취되는 것이 요셉의 인생이다. 다 알고 있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고 있는 것이다. 유월절,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이후 50일만에 성령을 받았다고 이야기 하고 맥추절 지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세신바 되었다고 하였다. 29절에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 만나는 이야기 나오는데, 예수님은 이 여자분 언제 올지 알고 거기서 기다렸다. 그 증거가 뭐냐면 여자는 아무말도 안했는데, 그 여자의 과거를 다 말씀하셨다. 시편 139편 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신다고 하였다. 이런 예가 얼마나 많겠는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밀한 것도 다 아신다. 우리의 머리털, 우리도 모른다. 다 빠진 사람은 한 개 남으면 한 개는 알 것이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손을 벗어날 수 없다. 청년, 렘넌트들 처음부터 이렇게 살아라.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보면 힘 없어 보인다. 그렇지 않다. 더 지혜로운 것이다. 힘이 이기냐? 성경에 지혜는 곧 말씀이고 그리스도라고 하였다. 하나님의 계획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행복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면 될수록 더 좋은 것이다.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더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언약되기를 바란다.

2.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다.

홍해 사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싸우지 않고는 불가능한 사건이다. 첫째는 힘이 비교가 안된다. 이스라엘이 되돌아가서 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영적으로 보면 상대가 사단이기 때문이다. 애굽은 사단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나라이다. 사단이 우리를 쫓아 온다면 누가 이기겠는가? 아무도 못 이긴다. 출애굽은 그림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설명해주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을 잊어 버리고 노예가 되었다. 그 언약 회복을 위해서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다. 그 언약의 피를 바르는 그날, 하나님이 사단에 역사해서 다 박살내셨다. 그런데 사단은 본래 기질을 따라 또 따라온다. 그래서 하나님이 홍해를 준비한 것이다. 거기에 다 빠져 죽었다. 쫓아 올때는 자기들은 다시 잡아와서 노예를 시킬거라고 했지만 다 빠져 죽고 말았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의 구원만 완성된 것이 아니라 육신의 구원도 완성되었다. 이제는 애굽이 따라오지 못한다. 이것이 출애굽을 요약한 그림이다. 원인은 언약을 놓친 것이다. 기도는 많이 했는데, 언약을 놓쳤다. 그리고 그 때 역사한 사단이 문제였다. 답은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다. 그 때 하나님이 역사해서 모든 것을 정리하셨다. 이것은 창세기 3장 원죄 문제와 그림이 똑같다. 그들이 언약을 했을때 저주가 찾아왔다. 그리고 그들은 자동적으로 사단의 종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의 말을 따라간다. 거기에 다시 하나님이 살리기 위해 언약을 주셨다. 그 언약 안에서 아담은 다시 살아났다. 이 아담을 다시 설명한 것이 로마서 5장 14절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하였다.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것이다. 언약 잡았다는 것이다. 언약의 사람으로 살았다는 것이다.

원인은 사단이므로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해야 한다. 인간은 절대 사단 못 이긴다. 그래서 홍해 사건에도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야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어야 한다. 그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왜 되는가?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언약이 다라는 것이다. 무엇을 위하여 다인가? 하나님이 역사하는데에 언약이 다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기 원하신다. 뱀의 머리를 박살내기 원한다. 그래서 이 뱀이 똬지 다시 한번 깨달기 원하신다. 아무도 인정 안 하는 이것이 원인이라고 하나님이 말하고 싶은 것이다. 그 답은 너무나 간단하다. 언약. 계속 처음부터, 연속적으로 말하고 있잖아.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잡고 기다리고 가만히 있어야 한다. 이것이 우리의 근본 자세이다. 물론 홍해의 길이 열리면 달려가야 한다. 거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뜻은 아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그것도 안했는데 되는 경우도 있다. 길이 열렸는데, 뛰어가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되는 경우도 있다. 홍해 길이 열렸는데, 하나님이 할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건 틀린 것이다. 다리가 자기 다리인가? 다

리를 자기가 만들었는가? 심장이 뛰어야 다리가 움직이는 것이다. 하나님은 홍해만 가르고 나머지는 니 일이야.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것이다. 머리카락이 우리것인가? 자기가 만들었나? 아니다. 이런 해석은 아주 싫어한다. 그런 책들을 보면서 분통이 터졌었다. 내가 하는것도 은혜로 하는 것이다. 역지로 그걸을 해석하려고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이 일반은총이다. 이미 나에게 온 것으로 하는 것이다. 100이다. 하나님이 다 하시고 우리 0이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언약 잡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이유가 사단이기 때문이다.

우리의 문제중에 사단이 원인이 아닌 것이 있는가? 경제도 영적문제이다. 영적으로 해결되어 돈도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다. 그때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것이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의 생각은 내가 노력해서 돈을 만든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불신자 방법이다. 그럼 놀라는 말인가? 놀아도 된다. 그런데 하나님 믿는 영적 수준이 되면 진짜 놀아도 된다. 돈 생긴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영적인것인데, 니가 그리스도를 영적으로 얼마나 깨달았나? 이것이 기준이다. 이것이 경제를 주실만한 수준이 되면 일 안해도 돈 생긴다는 그 말이다. 일년에 한번 했는데 10년 먹을만큼 나오는 것이다. 비즈니스를 했는데, 가만히 놔두면 대를 이어 먹는 것이다. 그런 것을 보고 노력했다고 말할수 있는가? 대부분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다 잊어버리고 불신자하고 비슷하게 사는 것이다. 그런데 은혜는 하나 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해석 그것은 은혜이다. 그러나 방법은 여전히 불신자와 비슷하다. 똑같다고는 못하지만. 그래서 이 영적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므로 기도를 크게 못한다. 기도가 내가 잘먹고 사는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하나님과 안 통하니깐. 한번 생각해 보라. 너는 가만히 있으라 했다. 너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는 것이다. 오늘부터 해봐라. 진짜인가? 내일부터 내가 매일 잠자도 괜찮겠습니까. 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 온다. 그 사람의 영적 수준에 맞는 응답. 너는 아직 움직여야돼. 니 생각 바꾸려면. 어떻게 이런 상황을 만들겠나? 아무도 돈갖다주는 사람도 없고 쌀도 떨어져가면 할수 없이 움직여야 한다. 이럴 때 대부분 하나님 응답 안했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아직 공짜 경제를 줄만한 영적 수준이 안된 것이다. 이 수준이 안되었을 때 주면 이게 다 인줄 알고 기고만장해진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하는데, 오히려 뒤집어지고 어디로 가버린다. 안된다. 내가 핑계대는 것 같나?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안하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고 말해놓고 핑계대는 것 같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의 해결이다. 여기에 살아야 한다. 그럴려면 여기에 답을 먼저 내야 한다. 답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다르게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자꾸만 답이 아닌 것을 좋아한다. 그것을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한다. 그것을 고쳐야 한다. 하나님이 그걸 고치는 과정이 필요하다. 내가 노력을 해서 먹고 살겠다고 생각하면 생각을 일단 다시 생각해보라.

마태복음 6장은 너희는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너는 이방인이 아니다. 너는 언약으로 사는 것이다. 니가 누구냐? 하나님 자녀 아니냐? 내가 누구냐? 천지를 만든 하나님 아니냐? 너는 언약만 누려라. 모든 것은 내가 한다이다. 그런데 이 언약이 너에게 언약이 되어 있지 않잖아. 이것이 답답한 것이다. 말만듣고 이것이 언약이 안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답답한 것이다. 그것이 마 6장이다. 너는 이렇게 살고 돈버는데 드는 시간 다 버리고 세계 복음화하는데 써라. 세상에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시간이다. 시간 다 날라가버리면 끝난다. 왜 돈버는데다가 다 시간을 투자하나? 복음 전하는데 시간을 투자해라. 돈은 공짜로 들어오는 것이다. 가만히 있어도 돈 들어오게 하고 너는 세계 복음화 하라는 것이다. 부모들은 이런 것을 자녀들에게도 심어야 한다. 렘넌트들도 생각해보라. 진짜 언약되기 바란다.

중요한 중직자 산업인 일어서야 한다. 잡을 언약이다. 그리스도가 언약이 되어 있나 아니냐, 그거다. 그 다음부터 더 깊은 언약들이 자꾸 나오는 것이다. 그 다음부터 더 구체적인 언약을 주시는 것이다. 홍해를 두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너는 가만히 있어라. 상대가 안된다. 상대는 사단이다. 너의 모든 문제 뒤에 사단이 역사한다는 이 눈이 없나? 너는 가만히 있어야 되고 가만히 있어도 괜찮다. 그래서 내 아들을 보낸 것 아니냐. 십자가에 죽기까지 했잖아. 왜 그랬냐? 너는 절대 안되니까. 그것 말고는 길이 없다. 이해하는 은혜가 있기 바란다. 진짜 언약되기 바란다.